2018. 1. 8. (월) 언론보도

경인방송

2018-01-08 00:00

임진각 '내일의 기적소리' 방문객 20만명 돌파...안보 관광지로 인기↑

독개다리 스카이워크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인방송=한준석 기자]

(앵커)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파괴된 경의선철교 '독개다리'에 설치한 스카이워크 일명 '내일의 기적소리'.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이 독개다리 스카이워크가 매년 20만 명이 방문하는 인기 관광지로 거듭났습니다.

한준석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21만9천명. 지난해 내일의 기적소리를 방문한 관람객 수입니다.

내일의 기적소리는 한국 분단의 역사적 상징물인 독개다리를 길이 105m, 폭 5m 규모로 복원한 시설입니다.

본래 출입통제구역이었지만 경기도가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2016년 출입제한을 풀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는 입장료도 받았지만 관람객은 계속 증가해 지난 한해 21만명이 찾은 인기 관광지가 됐습니다.

독개다리는 본래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와 장단면 노상리를 잇는 경의선 상행선 철도노선으로, 6.25전쟁 당시 폭격으로 파괴됐습니다.

휴전협정 조인으로 일부를 임시로 복구해 국군 포로 1만2천명이 이 곳을 통해 귀한했고, 98년 통일대교 개통 전까지 민통선 이북과 판문점을 잇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도는 이 같은 상징성을 활용해 임진각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 통일한국을 염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내일의 기적소리는 증기기관차 객차, 철로구간, 전망대 등의 시설로 구성됐으며 바닥에는 특수 유리를 설치해 전쟁당시 탄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통선 내 경치를 별도 출입허가 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관광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군의 허가 없이는 출입이 쉽지 않았던 민통선 지역의 개방이 확대되면서 안보관광의 가치가 더 커가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hjs@ifm.kr

경기방송

2018-01-08 14:23

독개다리 '내일의 기적소리', 개장 1년 만에 방문객 20만명 돌파

민통선 내 임진강 비경 자유로이 조망 가능

[앵커] 민통선 내 임진강의 비경을 자유로이 조망할 수 있는 독개다리 스카이워크 "내일의 기적소리"가 개장 1년 만에 방문객 2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내일의 기적소리"는 6·25전쟁 당시 폭격으로 파괴돼 교각만 남은 "독개다리"를 복원한 시설인데요.

보도에 최일 기잡니다.

[리포트]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약 1년여 간 독개다리 스카이워크 "내일의 기적소리"를 다녀간 방문객을 집계한 결과, 총 219,683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의 기적소리"는 6·25전쟁 당시 폭격으로 파괴돼 5개의 교각만 남은 경의선 구간중 하나인 "독개다리"를 길이 105m, 폭 5m 규모로 복원한 시설이며, 임진각 DMZ 일원의 볼거리·즐길거리를 확충하기 위해 조성했습니다.

공식 명칭인'내일의 기적소리'는 고은 시인이 "통일을 염원하며 내일의 기적소리가 오늘의 기적소리가 되길 바란다"라는 미래지향적 의미를 담아 만들었습니다.

휴정협정 이후 국군 포로 1만 2733명이 이곳을 통해 귀환했고, 1998년 통일대교 개통 전까지 민통선 이북과 판문점을 잇는 유일한 통로였다는 점에서 한국 분단사의 비극을 상징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도는 이 같은 상징성을 통해 임진각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통일한국을 염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6년 12월 21일 현판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콘텐츠로는 증기기관차 객차, 철로구간, 매직글라스, 전망대 등이 있습니다.

전쟁 이전 철교 형태를 재현해 과거와 현재, 미래로 꾸며진 다리를 걸어보며 민족상잔의 아픔과 역사를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닥에는 특수 유리를 설치해 전쟁당시 탄흔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민통선 내 풍광을 국방부의 별도 출입허가 절차 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김동욱 경기도 DMZ정책담당관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둔 만큼,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훌륭한 콘텐츠를 적극 발굴해 DMZ 관광의 묘미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의 기적소리'는 파주 문산읍 마정리 1400-5 일원 임진각 관광지내에 위치해있습니다.

개장시간은 11~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10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매주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관광공사(031-956-8305)로 문의하면 됩니다.

KFM경기방송 최일입니다.